

한국출판연구소, '2001 한국출판 평론·학술상' 공모·외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윤청광)는 '2001 한국출판 평론·학술상' 공모작을 모집한다. 출판평론 활성화와 출판연구 진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이 상은 출판정책·출판계 시평·시간평론 대상의 평론상, 출판 관련 논문과 단행본 대상의 학술상으로 나눠 당선작을 선정한다.

응모 부문별 주제는 ▲출판정책 부문—출판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등 정책진단과 제언 ▲출판계 시평 부문—각종 업계 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대안 제시 ▲신간 평론 부문—출판물의 장르별 최근 동향 분석이나 주제별 신간 서평(2001년도에 초판이 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하며, 책 한권에 대한 독후감식 서평은 제외함) ▲한국출판학술상—출판 관련 논문이나 단행본으로서 2000년 9월부터 2001년 9월 사이에 발표·간행된 학술문헌이다. 응모마감은 2001년 10월 31일(당일 소인 유효)이며, 당선작 상금은 각 부문별 2백만원이다. | 739-9040

출판인회의, 제3차 이사회 결의사항 발표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인호, 이하 회의)는 지난 9월 4일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 회의실에서 일부 출판사의 자사책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문제에 대한 제3차 이사회 결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회원사 여백과 은행나무를 각각 《상도》와 《눈물꽃》을 사재기한 혐의로 제명하며, 비회원사인 동문선의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새천년출판사의 《칭기스칸》, 이룸의 《사슴벌레 여자》역시 사재기를 통해 베스트셀러를 조작한 경우로, 출판계 전체의 자정과 독자들의 올바른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회의는 앞으로 출판영업인협의회와 공동으로, 사재기 방지를 위한 상설 기구를 구성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실천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는 9월 19일부터 3개월 동안 한국출판인회의 사무국 회의실에서 '출판경영자 정책아카데미'를 연다. '이 시대의 출판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각계의 권위 있는 지도자 및 대표적 지성인을 강사로 초빙해 시대적 변화와 신주류의 흐름에 대한 출판경영자들의 안목과 시야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새로운 세기 출판경영의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해 출판경영자의 전문성과 국가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신적인 토양을 확보하고자 개설했다. 모집대상은 출판사 대표

| 한국서련·출판협회 공동 집계 |

베스트셀러 종합순위(2001.9.2~9.8)

순위	제목	저자	출판사	분야
1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	진명출판사	비소설
2	The Blue Day Book	브레들리 트레버 그리브	바다출판사	비소설
3	바이올렛	신경숙	문학동네	소설
4	황태자비 납치 사건	김진명	해냄	소설
5	거울	원성	이레	비소설
6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	안철수	김영사	비소설
7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	웅진닷컴	비소설
8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1)	로버트 기요사키 외	황금가지	비소설
9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호리바 마사오	오늘의책	비소설
10	다이교로야 고마워	오타니 군코	오늘의책	비소설

및 예비 출판경영자 약 30명이며, 참가비는 50만원이다. | 3444-0623 | www.kopus.org

간행물윤리위원회, <9월의 읽을 만한 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윤양중, 이하 위원회)는 2001년 <9월의 읽을 만한 책> 10종을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책은 《슬픈 기억의 시간》(김원일, 문학과지성사), 《신돌석; 백년만의 귀향》(김희곤, 푸른역사), 《알도와 떠도는 사원(1~2)》(김용규, 이론과실천), 《나폴레옹의 싱크탱크들》(이저 월로치, 차재호, 흥익출판사),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안철수, 김영사), 《개인의 죽음》(렉 휘태커, 이명균 외, 생각의나무), 《대중과 과학기술》(김명진, 잉겔), 《우리 미술 100년》(오광수 외, 현암사), 《춘아, 춘아, 옥단춘아, 네 아버지 어디 갔니?》(이윤기 외, 민음사), 《아하! 그뻘 그렇게 살았군요》(이혁 글·그림, 김영사) 등이다.

한편 위원회는 독서 인구 저변 확대와 전국민 책 읽기 운동의 일환으로 매달 추천하고 있는 <이달의 읽을 만한 책>을 모은 목록집 《이달의 읽을 만한 책 II》를 발간했다. 이 목록집에는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지난 1년 동안 위원회가 추천한 책 120종의 내용요지 및 서평위원회의 추천사가 수록돼 있다.

전국 30개 대형서점에서는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달의 읽을 만한 책 II》에 수록된 추천도서 120종을 한곳에 모아 전시·판매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 669-0772 | www.kpec.or.kr

저작권심의위원회, '2001 저작권 문화가족 연수' 열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용)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대우금강산콘도에서 '2001 저작권 문화가족 연수'를 연다.

저작권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관련 실무종사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저작권 등록을 중심으로 바라본 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인터넷상의 전송과 방송을 통해 살펴본 저작권 문제' '저작권관리 관리시스템의 발전과 저작권 보호' '패러디와 저작권' 등 네개 주제를 선정해 특강을 열고, 참가자 전원이 참여하는 연구·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인원은 50명이며,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이다. | 669-9942

한국문화연구원, 학술집담회 열어

한국문화연구원(원장 정대현)은 지난 9월 13일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1층 회의실에서 제2차 '학술집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대 사회학과 신용하 교수가 '나의 한국학 연구의 길'이란 주제로 강연했다. | 3277-3198

영광도서, 일본어 무료강좌 개설

부산 영광도서(대표 김윤환)는 9월 17일부터 3개월 동안 영광도서 문화 사랑방에서 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16기 영광 일본어 무료 강좌'를 열고 있다. 이번 강좌는 권은경씨의 강의로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진행된다. | 051-816-9500 | www.ykbook.com

교보문고, 9월 교양강좌 열어

교보문고(대표 김년태)는 9월 14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지성인을 위한 9월 교보 교양강좌'를 열었다. 이번 강좌는 최근 《바이올렛》(문학동네)을 펴낸 소설가 신경숙씨를 초청해 '이오의 눈, 바이올렛' (신경숙의 나의 문학이야기)이란 주제로 열렸다.

| 397-3432 | www.kyobobook.co.kr

무재고 출판으로 출판유통의 새로운 지평 연다

YES24, POD출판 서비스 개시

인터넷서점 YES24(대표 이강인, www.yes24.com)가 최근 POD(Print On Demand)출판 서비스를 이달 안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무재고 출판을 핵심으로 하는 POD출판의 도입으로 출판유통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을 추진중인 강병국 도서사업본부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POD출판의 이점은 무엇인가?

"POD출판은 독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판이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분량만 인쇄하기 때문에 무재고 유통이 가능하다. 기존의 오프셋 인쇄방식은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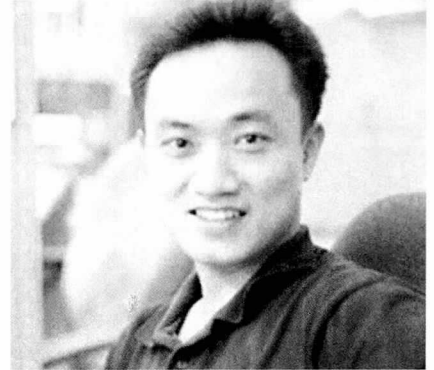
2~3천부를 찍어 초판 발행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게다가 독자층이 얇은 전문서, 학술서 출판은 더욱 어려웠다. 또 POD출판은 파일을 구할 수 없는 절판도서나 희귀본 출판에도 효율적이다."

서비스 방법과 단가는?

"POD출판의 주체는 저자와 출판사들이다. 저작권과 출판권도 저자와 출판사에 있다. YES24는 인쇄, 제본, 판매를 대행할 뿐이다. POD출판을 위해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POD출판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 출판사는 POD를 이용해 시장성 테스트도 해볼 수 있다. 제작단가는 일반 단행본 기준으로 대략 1만2천원 정도로 예상하는데, 수요량에 따라 가격조정이 가능하다."

앞으로의 계획과 서비스 시행시기는?

"지금은 종이책 서비스만 실시할 예정이지만, e-Book 서비스도 검토중이다. 우선 절판양서 복간과 학술서 신간출판, 수요가 한정된 북한서적 출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각 개인들이 자신만의 맞춤형 책을 원할 경우 그들의 도서출간도 지원한다. POD출판이 활성화되면 일반인들도 비용부담 없이 책을 낼 수 있어 새로운 저자 발굴도 가능해질 것이다. 서비스는 9월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 박옥순 기자



YES24 도서사업본부 강병국 본부장

다름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Communication
Design Partner Darum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바로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시각커뮤니케이션 : 브로슈어 / 카탈로그 / 홍보물/패키지 / CI, BI
출판커뮤니케이션 : 잡지 / 사사 / 사내외보 / 표지 · 본문디자인(단행본, 아동, 학습서)
광고커뮤니케이션 : 신문광고 / 잡지광고 / 포스터 / POP / 캘린더

dp design partner darum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5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_darumman@korea.com